

그다음에는 ‘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’를 쫓 나열하는 거지. 나열해놓고 보면, 상당히 많은 이유가 고착개념임을 깨닫게 돼. “원래 그랬습니다”, “그렇게는 안 되고요”, “우리나라 법이 안 돼요” 이런 것들 말이야.

수펙스 기준에 도달할 아이디어를 내자면 임직원들이 서드-서드 싱킹을 해야 하는데, 그게 고통스럽고 쉽지 않아. 그래서 최 회장님은 ‘캔 미팅(Can Meeting)’이란 걸 창안했어. 구성원들이 어딘가 고립된 곳에 가서 영감을 얻을 때까지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가지 않는 거야. 단절된 공간(can)에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며 토의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(can)는 거지.

캔 미팅은 외부 정보와 차단해야 하므로 휴대폰부터 수거하고, 대본도 없어.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이지. 그 상태로 무슨 말이든 해야 해. 2~4일을 그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별의별 의견이 다 나와. 말이 안 될수록 오히려 좋대.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주저하면 아무 생각도 못 하니 말이야.

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지치고, 그래도 그다음 날 또 계속해. 그런데 희한하게도 뒤로 갈수록 생기는 힘이 있다는 거야.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해결안이 튀어나오곤 한다는군.

최 회장님 생전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, 2박 3일 캔 미팅을 하면 거의 100가지 얘기는 나온대네. 말이 되건 안 되건, 평소 업무는 다 잊고 전화도 없이 떠들다 보면, 그 자리에서 문젯거리의 절반은 해결되곤 한다는 거야.

그럼 나머지 50%는 어떻게 해결해? 캔 미팅을 또 하는 거지. 그럼 그중 절반이 또 해결안을 찾는데.

그럼 나머지는?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건? “그때까지 남은 건 대부분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. 내버려둬도 괜찮아”라고 하시더라.

수펙스와 캔 미팅은 집요하게 세 번의 세 번 생각하기를 실행하는 좋은 방법 같아. SK에서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, 자네 회사도 시도해봐. 짜증나고 힘들어도 성과는 있을 거야. ‘No pain, no gain’이잖아. 나도 논문 쓸 때, 고민하고 고민해도 답이 없다가 마감이 다가 올 때까지 깊이 고심하면 답이 나오곤 하더라. 창의력은 응축에서 나오고, 응축은 집요함에서 성장하는 것 같아.